

울산·경남지역 제조업
현장 간담회

2019.6.27.(목) 14:20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19. 6. 27

금 융 위 원 회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간담회를 준비해주신
오토인더스트리 김선현 대표님과
간담회에 참석하신 울산·경남지역 기업대표님,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을 3대축^①으로 성장해 온 울산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지^②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① 울산 제조업 중 분야별 비중('17년, %): [조선] 8.5 [자동차] 22.1 [석유화학] 50.7

② 울산 제조업이 전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17년) : 11.6%

울산 수출액이 전국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8년) : 11.6%

- 다만, 최근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작년 5월, 울산 동구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역시 주력산업 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신산업 확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지정하여 고용·금융·세제 등의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제고방안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 발전전략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조선('18.11월), 자동차부품('18.12월), 수소경제('19.1월), 로봇산업('19.3월),
시스템반도체('19.4월), 바이오헬스('19.5월)

□ 특히, 지난 6.19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추인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무역질서 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조업 전반의 성장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 「세계 4대 제조강국」

※ 제조업 르네상스 4대 추진전략

① 스마트화ⁱ⁾·친환경화ⁱⁱ⁾·융복합화ⁱⁱⁱ⁾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 i) AI기반 산업지능화, ii) 클린팩토리 확산, iii) 제조+서비스,異업종 융합

②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 지속적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핵심 소재·부품·장비 집중육성

③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사람] 인재양성 로드맵, [기술] 도전, 속도, 축적의 R&D, [금융] 혁신금융 확대

④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 신산업 세제지원 강화, 혁신 공공조달 확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 신설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이 지역 현장까지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
울산에서 기업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을 통해
금융이 제조업의 재도약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금융정책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 [혁신금융]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 전환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으로 역할(「혁신금융 비전선포식」, '19.3.21)

2. 주력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 금융위원회는 조선·자동차산업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주력산업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수주를 통해 일감을 확보하고도 제작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기자재업체, 중소조선사 등에 제작금융, RG발급 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① (상생보증) 조선 3社 등의 출연을 통해 신·기보가 기자재 제작금융에 대해 보증 제공(0.1조원, '18.12월~) → '19.6.21일 기준 235억원 공급
- ② (RG발급 보증) 중소조선사 내수용 선박에 대한 산·기은의 RG 발급을 신보가 보증(0.1조원, '17.10월~) → '19.6.21일 기준 253억원 공급
- ③ (만기연장)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19년말까지 연장 → '19.6.21일 기준 16,226억원 실시

(2) 완성차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회사채발행, 우대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① (회사채발행 지원) 정부 등의 출연을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에 1조원의 장기자금을 공급('19.3월~) → '19.6.21일 기준 1,885억원 공급
- ② (우대보증) 중소 부품업체에 대해 신·기보가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제공('18.11월~) → '19.6.21일 기준 5,276억원 공급
- ③ (만기연장)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19년말까지 연장 → '19.6.21일 기준 13,608억원 공급 실시

(3)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설비·기술투자, 대중소 상생투자, 사업재편 분야에 기업 소요자금의 80% 지원 → '19.6.21일 기준 14,404억원 승인

- (4) 중소·중견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설비 교체 등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자금도 5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환경·안전 개선분야, 노후설비·건축물, 생활SOC 분야 시설투자 → '19.6.21일 기준 **3,166억원 승인**

- (5) 또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 **(기업구조혁신펀드)** 민간운용사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에 유동성 지원 → '19.5월 기준, 5,728억원 조성, 2,232억원 투자집행·검토

- 한편,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도** 개편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현장까지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 개편('19.2월) 주요내용]

- ① 주력산업 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평가 신설**
 - 신규공급(대출·투자)과 만기연장(대출) 실적을 평가하되 **신규공급은 예년평균대비 자금공급 목표 확대(10%)**
- ② '19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은 고용·수출·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후방 연쇄효과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 조선업**을 선정
- ③ **자금공급 목표**는 해당산업에 대한 **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 연장 실적**을 토대로 **업황·매출전망** 등을 감안하여 설정
- ④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

3. 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 금융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습니다.
 - 조선·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운영자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정책금융기관과 더불어 시중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조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선·자동차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새로운 자금수요에 대응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프로그램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 >

- (1) 먼저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은행에서 2.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산업은행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 자금지원분야

- ① **[주력산업]** 자동차 / 조선 / 디스플레이 / 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19년 경정)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 소재·부품·장비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 자동차·조선 / 섬유·가전('19년 산업부 업무보고)
- ② **[혁신성장]** 8대 핵심선도산업(미래차, 드론, 핀테크 등) 등 신성장·신산업 분야

- 기본적으로 0.8%p의 금리감면을 제공하고
조선·자동차 업종, 지방소재기업 등 중점 공급분야에는
최대 1%p의 금리감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추가 금리감면 적용분야

① 조선·자동차 업종, ② 지방소재기업, ③ 물류, 관광, 보건, 콘텐츠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4대 유망서비스

- (2) 1조원 규모의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보다 원활하게
시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 [산업은행 온렌딩] 산업은행의 저리자금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공급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중심으로 운영 중인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시중은행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시설자금(최대 0.45%p 인하)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금지원분야

- ① [주력산업] 자동차 / 조선 / 디스플레이 / 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19년 경정)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 소재·부품·장비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 자동차·조선 / 섬유·가전('19년 산업부 업무보고)
- ② [혁신성장] 8대 핵심선도산업(미래차, 드론, 핀테크 등) 등 신성장·신산업 분야

- (3) 일시적 경영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워크아웃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패키지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밸류업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①이 전문가의 경영진단^②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금융지원^③을 제공받아
재도약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① 총여신 10억원 ~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중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일시적 재무취약 상태의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기업
② CPA, 세무사, 컨설팅 법인 등 민간 전문가 컨설팅 → 경영개선계획 마련
③ 既보증·대출 만기연장 및 신규보증(100% 전액보증, 1% 고정 보증요율)

- 우선 금년중 60개 기업에 대해
경영진단 컨설팅, 만기연장 및 신규보증 제공 등
금융·非금융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하고
'20년부터 5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既발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완 >

- 그간 조선·자동차산업의 중소·중견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여전히 조선·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 조선산업의 경우 업황 회복세가 지연됨에 따라
글로벌 발주 전망이 하향 조정^①되고
중국·싱가포르 등과의 경쟁이 격화^②되면서,
기자재업체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① Clarkson 세계 조선업 발주전망 ('18.9월 전망 대비 '19.3월 전망 변동폭)
: 우리 주력선종인 VLCC(△31%), LNGC(△46%) 급감. 전체 선종은 △12%
② [중국] 국유조선소에 대한 지원과 합병으로 대형화 추진
[싱가포르] 동남아의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선가경쟁에서 국내기업 추월

- 자동차산업도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부품업체의 부진도 단기간 내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19년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美(△13.7%)·中(△3.2%)·EU(△3.2%) 등 3대
시장 판매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6.7% 감소한 2,247만대 수준

- 조선·자동차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프로그램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 (1) 조선기자재업체가 보다 쉽게 제작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생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상향
하겠습니다. (「**제작금융 상생보증**」)

- 지원대상을 조선기자재업체 뿐만 아니라
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보증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높이고
-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기준도 조정*하겠습니다.

* (보증서발급 거절사유)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 적자증가'
→ '최근 3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 적자증가'

- (2) 중소조선사의 중형선박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RG발급 보증한도를 기존 70억원에서 최대 15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중소조선사 RG발급 지원프로그램**」)

- (3) 또한 자동차산업 전후방 산업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원을 위해
회사채발행 지원 프로그램의 공급규모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자동차 부품업체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P-CBO)**」)

- 금년중 공급계획을 3,5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자동차부품업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예시)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안전유리 제조업 등

- 앞으로, 자금수요와 재원소진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년간 1조원의 총공급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 그간 조선·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의 분야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초격차를 실현하며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 하지만, 스마트화 등 기술혁신의 급진전,
플랫폼 경제 확산*과 같은 일련의 산업생태계 변화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구글, 아마존 등은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에 기반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영역을 확장

- 세계 각국 역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투어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미국] '첨단제조업 리더십 확보전략', [독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일본] '신산업 구조비전'

□ 우리 제조업도 기존의 ‘양적·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강국’ 실현을 위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 주력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고부가가치화되고
우리나라가 ‘4대 제조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 부문에서도 기업의 노력을 탄탄하게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최근 혁신금융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신
시중은행에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주요은행을 중심으로 창업지원·벤처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력산업을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점을 감안하여
주력산업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